

기획예산처·중장기전략위원회, AI 시대 청년 일자리 및 지역발전 선순환 방안 등 논의

- AI 시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·경력 형성 지원방안 논의
- 산업·인재·정주가 연계되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 논의

□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, 위원회)는 '26.10.16.(금) 「제9차 미래사회전략반·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< 위원회 개요 >

- (기능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(2012년~)
- (위원) 권오현 위원장(前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
- (분과) ①혁신성장반(AI, 바이오 등 주요산업·경제), ②미래사회전략반*(인구, 교육, 노동, 기후 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**(정부혁신, 규제개혁, 균형발전 등) 등 3개
 - * (미래사회전략반, 6명)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(분과장),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,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,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,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,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
 - ** (거버넌스개혁반, 5명) 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(분과장),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,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,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,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

□ 금번 회의에서는 AI 시대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형성 지원방안, 지역산업 성장과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 구축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
-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AI 확산에 따른 채용·직무 변화에 대응해 직무경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의 성과가 지역에 축적·환류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.

- 권오현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.
 -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가 서류전형을 위한 스펙 쌓기에 치우치지 않도록, 대학·기업 연계로 통해 실제 직무경험과 AI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 - 인소영 카이스트 교수는 청년들이 유망하다고 인식하는 분야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, 산업 현장의 수요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교육·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.
 -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기업 규모나 급여 외에도 근무환경과 생활여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, 지역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이러한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- 위원들은 청년들이 자신의 교육·훈련·경험이 향후 어떤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지 파악하고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·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.
-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 박철건 (044-214-1610)
		담당자	사무관 어우주 (hidwn@korea.kr)
	미래전략기획실 포용사회전략과	책임자	과 장 이혜림 (044-214-1710)
		담당자	사무관 심지혜 (jihyesim@korea.kr)